

사랑해요, 존중해요, 함께 행복해요!

.....

# 구조·보호 동물 임시보호 안내서





## 머리말

임시보호 제도(Foster Care Program)는 동물보호센터가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에게 보호 중인 동물을 위탁하고, 임시보호자는 본인의 집에서 위탁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동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외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임시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는 집단 보호시설이라 모든 개체를 살뜰하게 돌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임시보호 제도는 살뜰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들이 일반 가정(家庭)에서 사회화 경험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입양가족을 만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질병이나 상처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회복 중인 동물, 혹은 보호소에서 적절하게 보호받기 어려운 동물들이 위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입양가족을 기다릴 수 있어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안락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물들은 많지만, 임시보호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연령과 품종, 건강상태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임시보호 후보동물을 정하게 되므로 일부 동물들은 임시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려마루’와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임시보호자가 동물을 보호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과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것이고, 임시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물품과 의료서비스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임시보호 중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보호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겪어야 할 아픔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약간의 수의학적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매뉴얼은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가 안정적으로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이 임시보호자를 위한 안내서로 활용되어 보호 중인 동물들이 가정에서 사람과 더불어 편안히 지내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차례

|            |     |
|------------|-----|
| <b>머리말</b> | 003 |
|------------|-----|

|                           |     |
|---------------------------|-----|
| <b>1. 경기도 임시보호 제도의 소개</b> | 009 |
|---------------------------|-----|

|     |                    |
|-----|--------------------|
| 009 | 임시보호 제도의 목표        |
| 009 | 세부목표               |
| 010 | 임시보호 제도 참여자의 협조사항  |
| 011 | 임시보호 대상동물의 기준      |
| 013 | 임시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물품    |
| 014 | 임시보호 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 |
| 014 | 임시보호 기간            |

---

|                             |     |
|-----------------------------|-----|
| <b>2. 임시보호하기 적합한 공간의 기준</b> | 015 |
|-----------------------------|-----|

|     |                                   |
|-----|-----------------------------------|
| 016 | 집 안의 위험한 요소 확인                    |
| 017 | 음식물 보관주의하기(특히, 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물질 확인) |
| 020 | 임시보호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

### 3. 임시보호 시작하기 021

022 개와 강아지 임시보호

023 고양이 임시보호

---

### 4. 평소 관리사항 025

025 사료와 물 급여

026 발톱 깎아주기

027 산책하기

028 털 손질 등 목욕시키기

---

### 5. 위생 관리하기 030

030 세척 및 소독

031 소독제 선택 기준

---

### 6. 기초 교육 033

033 무는 행동, 입질 교정

034 배변 교육

035 이동장(크레이트, crate) 교육

037 장난감 놀이

037 사회화

- 038      긍정 강화훈련
  - 038      타임아웃
  - 039      식분증
- 

## 7. 동물별 관리 방법 041

- 041      강아지 관리
  - 047      호흡기 질환에 걸린 개 또는 강아지 관리
  - 048      새끼 고양이 관리
  - 057      치료가 필요한 동물
- 

## 8. 임시보호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061

- 061      정상적인 체온, 심박수, 호흡수
  - 062      임시보호 동물이 아플 때 대처방법
- 

## 9. 임시보호 동물의 문제행동 71

- 072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갖는 문제행동 유형

10.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74

074 임시 보호 동물의 탈출

075 임시 보호의 중단

---

11. 입양가족 찾아주기 076

076 임시보호 일지(개체 기록지) 작성

077 사진 촬영

077 다양한 홍보

---

12. 임시보호 종료 079

---

참고문헌 082





## 경기도 임시보호 제도의 소개

### 01

#### 임시보호 제도의 목표

임시보호의 목적은 보호 중인 동물이 임시보호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보호자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입양가족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 세부 목표

- 회복이 필요한 동물에게 안락한 공간 및 약물 제공 등 회복에 기여
- 어린 동물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 기여
- 동물보호센터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예방
- 동물의 사회성 발달 및 입양 가능성 증진

## 임시보호 제도 참여자의 협조사항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①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중인 동물의 반환을 요청한다.
  - 임시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 임시보호 동물을 입양하려는 자가 입양신청 절차를 완료한 경우
- ② 임시보호 동물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자의 집에 방문할 수 있다.
- ③ 웹 사이트나 게시판 등에 임시보호 대상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 ④ 임시보호 대상동물의 선정과 수의학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임시보호자(자원봉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 임시보호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① 보호 가정 내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보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임시보호에 참여한다.
- ③ 임시보호 동물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④ 임시보호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해 관할 임시보호 담당자와 원활한 연락 등 긴밀히 협조한다.
- ⑤ 타인 등에게 동물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동물을 이용해 영리를 취해선 안 된다.
- ⑥ 동물의 등록 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⑦ 임시보호 종료 후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임시보호 일지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환한다.

## 임시보호 대상동물의 기준

- 1)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기에 너무 어린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8주령 이하)

8주령이 안 된 동물은 입양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선천적인 질환, 면역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폐사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세심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보호 가정에서 개별적인 돌봄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2) 질병이나 부상 등에서 회복 중인 동물

정기적인 소독과 약물투여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동물은 회복 이후 입양 가능성이 높다.

## 3) 사회화 경험이 부족한 어린 동물

어린 동물은 다 자란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에 학대 경험이 있거나 사람과의 교감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입양가정에서 파양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임시보호 가정집에서 임시보호자와 교감하는 기회를 통해 입양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4)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동물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보아 입양 가능성이 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에서 스트레스 등 행동학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라면 임시보호 가정집의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임시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 5) 기타 동물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물

## 임시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물품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직영 동물보호센터 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

### 1) 공통

|              |               |          |               |
|--------------|---------------|----------|---------------|
| • 사료         | • 간식          | • 담요, 방석 | • 밥그릇,<br>물그릇 |
| • 이동용<br>케이지 | • 탈출방지<br>이중문 | • 장난감    | • 소독제(락스)     |
| • 인식표        | • 발톱 깎기       | • 브러쉬    | • 수건          |
| • 목욕 샴푸      | • 직장 체온계      | • 탈취제    | • 넥 칼라        |

### 2) 개

|         |          |                     |
|---------|----------|---------------------|
| • 배변 패드 | • 산책용 목줄 |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
|---------|----------|---------------------|

### 3) 고양이

|       |      |        |
|-------|------|--------|
| • 화장실 | • 모래 | • 스크래처 |
|-------|------|--------|

### 4) 어린동물

|          |      |          |
|----------|------|----------|
| • 주방용 저울 | • 핫팩 | • 동물용 분유 |
|----------|------|----------|

## 임시보호 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수의사는 임시보호 동물이 임시보호자의 가정집으로 위탁되기 전 검진을 통해 해당 동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이 8주령 이하로 어린 경우, 기관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임시보호 기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예방접종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임시보호 중에 본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진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시보호 기간

임시보호 기간은 임시보호자의 여건과 임시보호 동물의 상태 등을 토대로 동물보호센터와 임시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기간은 평균 약 2개월 정도인데 입양이 빨리 진행될 경우 정해진 임시보호 기간 중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어린 동물은 8주령 이후부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 입양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임시보호 기간을 8주령까지로 한정할 수도 있다.



## 임시보호하기 적합한 공간의 기준

### 02

어린 동물은 항상 실내에서 돌보아야 한다.

임시보호 동물에게 적합한 실내온도(20~26℃)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5주령 이하의 어린 동물은 26~29℃ 정도로 더 높은 실내온도를 유지해 주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보호 동물이 집 밖으로 탈출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문이나 창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철망(방묘창 등), 간이 울타리, 탈출방지 이중문 등을 특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동물의 탈출방지에 도움이 된다. 동물은(특히 고양이) 낯선 공간에 있게 되면 숨거나 도망가려는 본능이 있으므로 작은 틈은 미리

막아 놓아야 한다.

플라스틱 식기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척 및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 재질의 식기류를 권장한다.

동물이 머무는 공간의 바닥은 오물이 쉽게 닦이고 소독제 사용이 가능한 재질이 좋다. 만약 임시보호 가정집에 화장실이 두 개라면, 하나의 화장실을 동물이 처음 집에 왔을 때 격리할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화장실을 격리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바닥과 벽의 소독이 용이하며 동물이 머무르기에 적당한 면적이므로 동물보호센터의 비좁은 케이지보다 청결함을 유지하기 좋은 공간이다.

## 집 안의 위험한 요소 확인

### 1) 작은 물건,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 정리

임시보호 동물이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물건(비닐 조각, 플라스틱, 클립, 단추, 고무공, 고무줄 등)과 건드렸을 때 깨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치워 놓는다.



## 2) 화장실 변기 뚜껑 닫기

어린 동물은 변기 내부에 고여 있는 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뛰어올랐다가 변기에 빠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중이 아니면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놓는다.

## 3) 숨기 좋은 작은 틈 차단 및 창문 닫아 놓기

낮선 환경에서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숨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틈을 차단하고, 집 안의 모든 창문은 닫아 놓아야 한다.

## 4) 가전제품 전선 정리

가전제품 전선을 물어뜯어 화재, 감전 또는 화상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선을 정리한다.

## 음식물 보관 주의하기(특히, 동물에게 독성이 있는 물질 확인)

사람이 먹는 음식을 포함하여 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 장소를 다시 확인한다. 또한, 동물에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식물이나 소독제, 살충제 등 약품들도 마찬가지로,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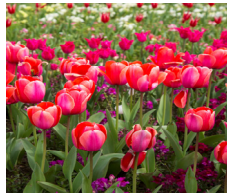
## 1) 독성 유발 물질

|                 |         |          |           |
|-----------------|---------|----------|-----------|
| • 쥐약            | • 바퀴벌레약 | • 포도     | • 건포도     |
| • 비타민D<br>(과복용) | • 초콜릿   | • 에센셜 오일 | • 각종 세제   |
| • 양파            | • 자일리톨  | • 마늘     | • 아세트아미노펜 |



## 2) 독성 유발 식물 종

|       |         |         |        |
|-------|---------|---------|--------|
| • 진달래 | • 철쭉    | • 백합    | • 수선화  |
| • 튤립  | • 가을사프란 | • 칼란코에  | • 소철   |
| • 알로에 | • 브룬펠시아 | • 디펜바키아 | • 히아신스 |



## 임시보호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이하 ‘기존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임시보호 동물을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기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성화도 되어 있어야 한다. 임시보호 동물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반려동물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질병 잠복기를 고려하여 2주간은 서로 격리하도록 한다.

기존 반려동물과 임시보호 동물을 서로 만나게 할 경우, 임시보호자는 항상 둘의 사이를 지켜봐야 하고 갑자기 서로 공격할 수 있으므로 동물들만 남기고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격리 기간 이후, 임시보호 동물과 기존 반려동물이 함께 지내는 것이 괜찮아 보인다면 사료와 물그릇, 방석 등을 따로 마련해서 둘 사이에 불필요한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임시보호 시작하기

### 03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임시보호자에게 이동장(크레이트)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임시보호자가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을 권장한다. 집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우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 안에서는 이동장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벨트나 담요 등으로 조처를 하여 동물이 안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임시보호자의 가정에 처음 도착하면 낯선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보호 동물을 걱정하여 더 많이 신경 쓰려고 하기 보다는 미리 마련된 공간에서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이후 적응 상태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좋다.

## 개와 강아지 임시보호

임시보호 가정에서 첫 2주간은 미리 마련한 제한된 공간에서만 보호하고 그 공간에 이동장이나 케이지를 두어 케이지 안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는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고립되게 혼자 두는 것보다는, 격리되어 있어도 임시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중인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다른 동물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임시보호 중인 개의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다른 개와 싸워서 다칠 경우에는 입양이 어려워지거나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중인 개와 산책을 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집 근처에서만 가볍게 산책하도록 한다.

개마다 성향이나 활동량이 다르지만 대체로 6~24개월령 미만의 개들은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임시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보호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산책 중 다른 사람이나 개를 만났을 때 긴장하거나 두려워한다면  
한적한 장소에서 산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 고양이 임시보호

고양이는 보통 개보다 더 예민한 동물로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스트레스로 몸을 숨기려 한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정상이지만  
고양이가 침대나 소파 밑, 에어컨 뒤와 같은 작은 틈으로 억지로  
들어갔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높은 선반 위로 올라가거나  
열려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다. 만약  
고양이가 틈에 들어가 숨을 경우 억지로 나오게 하지 말고  
장난감이나 간식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고 기다려 준다.

고양이가 불안해할 경우, 미리 마련된 공간에서 혼자 머무르도록  
해준다. 고양이가 처음 가정에 오게 되면 미리 마련한 공간에  
이동장을 내려놓고 문만 열어 놓은 상태에서 고양이가 이동장에서  
나올지 머무를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 준다. 조심성이 많은  
고양이라면 이동장 안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고양이 화장실과 사료·물그릇은 공간 내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배치해준다.

고양이가 방 안을 편안하게 돌아다니는지, 사료나 물을 잘 먹는지 확인하였다면 간식을 갖고 방 안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자. 간식에 반응하여 다가온다면, 먼저 다가가지 말고 간식을 먹는 것을 기다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임시보호자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만약에 임시보호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고양이가 도망가거나 숨고 낮은 자세로 돌아다닌다면 경계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므로 적응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좋다.





## 평소 관리사항

### 04

#### 사료와 물 급여

처음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제공한 사료만을 동일한 시간에 급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된다. 임시보호 기간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맛보게 되면 이미 형성된 식습관으로 새로운 입양가족과 지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개 사료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주는 것을 권장하며, 1회 급여량은 체중이나 나이, 활동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료 회사에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정량을 주도록 한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비만이 아니라면 그릇에 담아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한다. 사료는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지 않게 한다.

물은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잘 관리해주어야 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물의 신선도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 발톱 깎아주기

대부분의 동물은 발을 만지는 것에 예민하므로 무리하게 발톱을 깎으려다 물릴 수도 있다. 따라서 발톱을 깎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 차례 발을 부드럽게 만지고, 쓰다듬어서 거부감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식을 먹이면서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발을 처음부터 세게 잡지 말고 점점 힘을 주어 발톱을 깎기 위한 힘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양이는 발가락을 살짝 눌러서 발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발톱 안쪽에 분홍색 혈관을 확인한 후 발톱이 아래로 휘어지기 시작하는 곳의 앞을 자른다. 실수로 발톱 밑 피부가 잘려 피가 나오면 출혈이 멈출 때까지 솜으로 압박하고, 지혈 파우더가

있다면 발라준다. 검은색 발톱을 가진 개는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톱이 휘어지는 곳 정도에서 혈관을 피해 적당히 자르는 것이 좋다.

## 산책하기

집 근처 산책은 임시보호자와 임시보호 동물의 유대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6~24개월령의 개는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종종 산책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산책 중에 다른 개와 마주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부득이하게 마주칠 경우에는 다른 개가 지나갈 때까지 임시보호자가 둘 사이에 서서 충돌을 막아주도록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강아지는 산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이 시기는 새롭고 다양한 자극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한적한 곳에서라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책할 때는 함께 뛰는 것보다 서로 속도를 맞춰 걷는 것이 좋다. 개가 너무 앞서갈 경우 임시보호자는 가만히 서서 속도를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때 개가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임시보호자에게 오면 칭찬을 해 주고 다시 걷도록 한다.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앞으로 더는 못 가게 할 정도의 힘이면 적당하다.

임시보호 중인 개에게 산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휴식을 좋아하거나 외부 활동을 싫어하는 개라면 집 안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 털 손질 등 목욕시키기

털은 브러시를 사용하여 빗겨주고, 털을 빗길 때 공격성을 보인다면 빗질을 멈춘다.

개를 목욕시켜야 하는 주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책 등으로 털이 더러워지거나 개에게서 냄새가 나는 등 목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씻겨주면 된다. 브러시로 털을 자주 빗겨주면 목욕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털이 물에 젖으면 서로 뒹켜 빗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빗질을 하려면 물이 묻기 전에 해야 한다. 목욕할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을 바가지에 담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흘리면서 적셔주고 동물 전용 샴푸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준다. 미리 담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행궈주고 만약 샤워기를 사용한다면 수압에 놀라지 않게 샤워기 헤드를 손으로 감싸준다.

목욕이 끝나면 스스로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도록 잠시 기다린 후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말려준다.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강약을 조절해 주고 너무 가까워서 틀지 않도록 한다.

목욕 후 2시간 정도는 차가운 곳을 피하고, 특히 노령견이나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는 목욕 후 3시간 정도는 따뜻한 곳에서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준다.

고양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보호 기간에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고, 목욕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털이 더러워졌다면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거나 심하면 더러운 부분만 물로 씻기고 잘 말려준다.



## 위생 관리하기

### 05

#### 세척 및 소독

임시보호 기간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물이 머무는 곳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소독약품 하나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세척하고 소독한다면 충분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소독제라도 기름성분 등 오염물질이 묻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성세제로 먼저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일정 시간 소독하고 잘 건조해야 한다. 소독 작용을 위한 시간(10분 이상)이 필요하므로 소독제를 도포한 후 금방 씻어내지 않도록 한다.

동물이 머무는 환경의 위생과 더불어 임시보호자의 손 씻기 습관도 중요하다. 동물을 만지기 전과 만진 후에는 따뜻한 물로 손을 적셔 비누로 손 전체를 골고루 문지르고 완전히 행군다.

사료·물 그릇은 중성세제로 매일 세척 후 건조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 관리한다.

### 소독제 선택 기준

소독제로는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락스를 권장한다. 소독 성분이 혼합된 소독제는 동물에게 독성을 가진 성분도 포함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락스는 냄새가 자극적이고 위험한 소독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맞게 희석하여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소독제다. 락스의 희석비율<sup>1</sup>은 락스:물=1:32 비율이 가장 적당하고 피부사상균(렙토티스)에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는 1:16 비율로 농도를 높여서 사용해야 한다.

---

<sup>1</sup> 일반 가정에서 희석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물 1L 기준으로 락스 뚜껑 (500mL~2L 제품 뚜껑 용량 10mL, 대형제품 뚜껑 용량 15mL)으로 30mL를 넣으면 1:32 비율의 희석액을 만들 수 있다.

페놀 기반의 제품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제품 정보가 불확실하고 제품명에 ‘-솔(sol)’이 포함될 경우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암모늄 계통의 소독제(염화벤잘코늄)는 사용 후 잘 행구지 않으면 고양이가 핥았을 때 혀에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기초 교육

### 06

임시보호 기간에 기초 교육을 받은 동물은 입양 가정에 쉽게 적응하여 잘 지낼 가능성이 높다.

#### 무는 행동, 입질 교정

동물의 무는 행동은 본능이지만, 무는 세기를 잘 조절하는 법은 배워야 한다. 보통 함께 태어난 형제끼리 장난으로 서로 물면서 아플 때 소리를 지르면 이를 보고 배워나가는데 일찍이 혼자가 된 어린 동물은 그럴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임시보호자는 동물과 놀아줄 때 세게 문다면 ‘아파’, ‘아야’ 등 소리를 내고 그 순간 동물이 무는 것을 멈추면 칭찬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해도 멈추지 않으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놀아준다.

만약 무는 행동이나 입질 때문에 혼내거나 때리면 행동 교정도 안 될 뿐 아니라 신뢰 관계를 잃게 되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무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씹을 수 있는 장난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물고 뜯고 씹는 과정에서 간식이 튀어나오는 장난감이라면 더 흥미를 갖게 되어 사람 손을 무는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 배변 교육

배변 교육은 임시보호 시작 첫날부터 중요하다. 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으면서 잠자리, 밥 먹는 곳, 그리고 배변할 곳에 대한 학습을 시작한다. 강아지는 보통 잠에서 깨거나, 사료·물을 먹은 후, 또는 놀고 난 뒤에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이를 잘 관찰한 후 배변 패드에 데려가면 성공 확률이 높다. 또는, 바닥 냄새를 맡거나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배변 장소로 데려간다. 필요하다면 대소변 보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 주변에 간이 울타리를 놓아서 대소변을 볼 때까지 기다려 준다.

성공하면 칭찬해 주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한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수했어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실수한 장소에 강제로 들이밀면 안 된다. 동물은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서워하게 되어 나중에 몰래 숨어서 대소변을 보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임시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대소변을 보면, 탈취제로 냄새를 제거하고 그 공간에 사료·물 그릇과 장난감을 함께 놓아서 그 장소가 배변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동물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 이동장(크레이트, Crate) 교육

이동장 교육은 임시보호 동물이 이동장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를 통해 이동장이 동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동장에 잘 적응한 동물은 차를 타거나 동물병원에 내원했을 때도 불안감을 덜 느끼고 분리 불안 증상도 거의 없다.

- 1) 교육에 앞서서 이동장 안에 포근한 방석이나 담요를 넣어 놓는다.
- 2) 사료나 간식(개껌 등), 장난감을 넣어주어 동물이 스스로 이동장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이동장에 동물을 억지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사료나 간식을 조금씩 넣어주어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한다. 처음에는 간식으로 동물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점차 익숙해지면 안에서 간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천천히 넣어준다. 만약 밖으로 나오려하면 재빠르게 간식을 넣어 나오지 않고 더 머무를 수 있게 한다.

- 3) 산책을 다녀온 후 동물이 피곤할 때 간식을 이동장 안으로 넣어 그 곳에서 쉬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4) 이동장의 크기는 동물이 서있거나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지만 성장하여 작아진 경우 더 큰 이동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 주의

만약 이동장 안에서 동물이 빙빙 돌거나 거친 숨을 쉬며 불안해하면 교육을 중단한다. 나중에 다시 시도했을 때 또 불안 증세를 보이면 이동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기록하여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절대로 이동장에 억지로 넣거나 체벌을 목적으로 가두어선 안 된다.

## 장난감 놀이

공, 봉제 인형, 낚싯대와 같은 다양한 장난감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임시보호 동물에게 단순히 장난감을 주는 것이 아닌 장난감과 함께 임시보호자가 놀아주면서 동물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사회화

일반적으로 생후 3주 내지 3개월령 시기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직 백신 접종이 끝나지 않아 바깥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것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야 올바른 사회화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이 동물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낯선 요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면 이후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를 타고 외출한다면 차 안이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준다.

## 긍정 강화훈련

동물이 좋은 행동을 보여줬을 때 이를 칭찬하고 보상해 주면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반대로, 좋지 못한 행동에는 가볍게 주의를 주거나 차분하고 느리게 신체 일부를 살짝 밀어내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다만, 좋지 못한 행동에 대해 크게 혼내거나 물리적인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체벌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타임아웃

놀이 도중 동물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일시적인 단절을 통한 행동 교정 방법이다. 한 번의 타임아웃으로 의미를 바로 알아내지 못하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시적인 단절(자리 비움, 놀이 중단 등)을 일관되게 여러 번 반복하여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배우도록 해준다.

보통 15~30초 정도로 잠깐 혼자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칭얼대거나 문 등을 긁는 행동을 보여 꺼내준다면 그 행동을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타임아웃 시간을 짧게 하여 살짝 당황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 보이면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외면하는 방법

외에 조용한 장소에 잠시 머무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 식분증

개에게 식분증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강아지 식분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는 영양결핍 등 생리학적 원인과 환경이나 학습에 따른 행동학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 강아지가 자신의 대변을 먹는 경우는 비교적 흔한데,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을 때 부족한 영양분을 배설물에서 채우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난삼아 냄새를 맡아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어미 개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활아 먹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일 수도 있다.

강아지 식분증은 다른 행동 문제보다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야단칠 경우, 단지 배변했다는 이유로 혼난다고 오해하여 더 빨리 흔적을 없애기 위해 대변을 먹으려 할 수도 있다.

임시보호 기간에 식분증이 확인되면 배변 후 즉시 치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변을 먹는 행동을 보이면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지 말고 간식 등을 주어 관심을 돌리고 대변을 치워준다.

산책 중에 대변을 보게 되면, 변 냄새와 함께 주변 환경(흙, 잔디 등) 냄새를 골고루 맡게 해준 후 대변을 치워주는 방법도 식분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동물별 관리 방법

### 07

#### 강아지 관리

갓 태어난 강아지는 귀와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약 10일 정도를 지내게 되므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행동만 한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 온도는 26~30℃ 정도로 유지하고 고무 핫팩(hot pack)에 따뜻한 물을 담아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다만, 핫팩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고, 더워할 경우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린 강아지는 각 주령별 발달 상태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르므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 강아지는 출생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1~2주 후엔 서서히 눈을 뜨며 2주 정도 지나면 귀가 열리게

된다. 생후 3주령까지는 스스로 배뇨·배변을 하지 못하므로 항문과 생식기에 외부 자극을 주어 배뇨·배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주변이 항상 깨끗하도록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 잘 말려주어야 한다.

만약 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있다면 반드시 어린 강아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 관리와 손 씻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임시보호자는 강아지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강아지의 무게와 먹은 양을 기록해야 한다. 잘 자라던 강아지도 체중이 늘지 않고 갑자기 기운 없이 하루 종일 울 수 있다. 이런 강아지는 치료를 받아도 48시간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 전염병이 아니어도 원인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임시보호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 1) 안전하게 분유 먹이기

### 가) 분유를 먹이기 전 확인사항

어린 강아지는 분유를 쉽게 기도로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젖병 꼭지에서 분유가 천천히 나오는지 확인한



후 먹여야 한다. 만약 분유를 먹이는 중에 분유가 코 밖으로 나온다면,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기도로 들어간 분유가 폐로 들어갈 경우 재채기를 하게 되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 준다.

강아지가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분유가 폐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나) 분유 만들기과 보관방법

강아지 전용 분유를 만들 때 물과의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물이 적거나 더 많이 들어가면 변비, 영양부족,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도록 하며 수유 전에 분유를 손등에 떨어뜨려 온도(40℃)를 확인한다.

만들어 놓은 액상 분유는 24시간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되도록 한 끼 먹일 양만큼만 만들어 사용하고 가루 분유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냉장 보관한다. 개봉하고 남은 가루 분유는 냉장 보관 시 3개월, 냉동보관 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분유 먹이는 방법

수유할 때 강아지의 배가 바닥에 닿는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하고 입을 살짝 열어 젖병 꼭지를 강아지 혀 위에 올려준다. 어미 개가 강아지를 모유 수유할 때처럼 강아지의 배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는 살짝 위로 올려 목을 편 자세를 유지하도록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한다. 수유 중일 때 분유가 기도로 쉽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일부러 젖병을 눌러 분유를 짜내지 말아야 하고 강아지가 과식하지 않게 배를 만져가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젖병이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라면 바늘(니들, needle)이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볼 안쪽에 분유를 천천히 흘려주어 삼키는지 확인한다.

#### 라) 분유를 먹인 후

분유를 다 먹인 후에 손바닥에 올려놓고 과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른 손으로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트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수유가 끝나면 젖병은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하고, 강아지가 배변·배뇨를 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강아지가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돌보아야 한다.

3주령까지는 분유 수유 이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항문과 생식기를 문질러 자극을 주고 배뇨·배변이 끝날 때까지 자극을 반복해준다. 어린 강아지는 하루 1회 이상 배뇨·배변함이 정상이며 변비가 의심되면 면봉에 식용 기름을 발라 항문 자극으로 배변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

## 마) 시기별 급여량 및 급여시간 등

- (1) 강아지는 품종마다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분유의 양을 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유하면서 강아지의 배가 불러오는 정도가 너무 똥똥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젖병을 빼려고 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적당량을 먹었다고 볼 수 있다. 분유를 만들 때와 수유할 때는 반드시 먼저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 (2) 2주령 미만 강아지는 2~3시간 간격으로 수유하고 밤에는 3~4시간마다 하되, 강아지가 자고 있다면 일부러 깨워서 수유할 필요는 없다.  
이 시기에는 강아지가 하루의 90% 이상을 먹고 잠만 자면서 지내므로 너무 자주 만지지 말고 수유, 배뇨·배변 시간에만 만지는 것이 좋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곳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 만약 수유 후에 강아지가 계속 운다면 어디가 아프거나 분유를 적절히 먹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수의사 검진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3) 2~4주령의 강아지는 3~4시간 간격으로 수유한다. 이 시기부터는 강아지는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조금씩 일어서기 위한 행동을 보인다. 아직 이빨이 나오지 않지만, 강아지들은

서로 놀면서 깨물기도 한다. 3주령쯤부터는 이빨이 나오기 시작하고 강아지들끼리 사회화가 시작된다.

3주령이 지나면 시각이 발달하게 되고 스스로 그루밍을 하므로 이 시기에는 임시보호자가 따뜻한 물티슈로 털 상태가 깨끗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주령 정도 되면 강아지가 주변을 핥기 시작하므로 작은 접시에 분유를 담아서 먹여본다.

강아지가 4주령이 되면 배가 고파서 울 경우만 젖병으로 수유한다. 이 시기부터 그릇에 담긴 물을 잘 마실 수 있으므로 분유 먹이는 방식도 젖병에서 그릇으로 서서히 바꾸도록 한다. 또한, 배변 패드를 사용하여 대소변 교육을 한다. 강아지가 분유 등을 먹고 나면 항상 배변 패드 위에 올려놓고 기다려준다.

- (4) 5주령이 되면 따뜻한 물로 불린 사료를 그릇에 담아 먹이고 조금씩 물의 양을 줄여 가도록 하고, 다른 그릇에는 불리지 않은 사료를 함께 두도록 한다. 이때부터는 강아지가 그릇에 담긴 분유나 사료를 스스로 먹다 보니 젖병 수유 때보다 입 주변부와 몸이 더 많이 지저분해지므로 따뜻한 물티슈로 세심하게 닦아주어야 한다.
- (5) 6주령이 되면 하루 3~4회 건식 사료를 먹이되, 상태에 따라 불린 사료를 줄 수 있다. 사료를 먹고 난 후 또는

낮잠을 자고 난 이후에 주로 배뇨·배변을 하므로 밥그릇이나 잠자는 곳에서 멀지 않은 주변에 배변 패드를 두어 실수하지 않고 배변할 수 있게 도와준다.

- (6) 7주령이 지나면 강아지와 놀아주면서 ‘앉아’, ‘기다려’ 등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8주령은 어린 강아지의 임시보호가 종료되는 시기이자 입양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 호흡기 질환에 걸린 개 또는 강아지 관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들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켄넬코프(kennel Cough, 개전염성기관 기관지염)<sup>2</sup>라는 감기 증상이 있다. 감염되는 병원체에 따라 주로 가을에서 겨울에 혹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염성이 강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쉽게 유행하고, 특히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개나 어린 강아지는 더 쉽게 감염된다.

사람의 감기와 마찬가지로 켄넬코프에 감염된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하면서 영양과 물을 잘 보충해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임시보호 중인 개가 켄넬코프에 감염되었다면

---

<sup>2</sup> 이 질환은 하나의 원인균이 아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복합 감염으로 발병하는데, 대표적인 원인균은 *Bordetella bronchiseptica* ca이며 바이러스는 canine parainfluenza,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adenovirus 등이 있다.

집 안에 있는 다른 반려견도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켄넬코프의 잠복기는 대략 5~10일이고, 기침으로 전염되며 증상은 10~20일 정도 지속된다.

일반적인 증상은 마른기침과 콧물 흘림이며 그 외에 헛구역질, 구토, 코 막힘 증상도 있다. 임신보호 중인 개가 켄넬코프로 무기력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온다면 2차 감염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임신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수의사의 지시에 맞춰 투약하고 임의로 투약을 중단해선 안 된다. 가슴기 등으로 실내 습도를 높이거나 화장실에 잠깐 두고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틀어 습도를 높이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새끼 고양이 관리

### 1) 임신보호 전 일반 유의사항

대부분의 새끼 고양이들은 많이 연약하여 정성을 다해 보살펴도 쉽게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임신보호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임신보호를 시작하여야 한다. 혹여 새끼 고양이가 죽더라도 자신을 탓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는 임시보호자에게 새끼 고양이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보다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새끼 고양이가 원인을 모른 채 갑자기 죽는 경우(Fading Kitten Syndrome)가 있는데 이는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전적인 결함인 경우가 많으나,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반드시 위와 같은 사항과 새끼 고양이를 관리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임시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새끼 고양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보호자와 접종 일자 등을 상의해야 한다. 임시보호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시에 따라 새끼 고양이를 항상 따뜻한 공간에 지내도록 하고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양이 주변을 청결하게 소독·관리해야 한다.

## 2) 안전하게 분유 먹이기

### 가) 분유를 먹이기 전 확인사항

새끼 고양이는 분유를 쉽게  
기도로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젖병 꼭지에서  
분유가 천천히 나오는지 확인한  
후 먹여야 한다. 만약 분유를  
먹이는 중에 분유가 코 밖으로



나온다면,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기도로 들어간 분유가 폐로  
들어갈 경우 재채기를 하게 되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  
준다.

고양이가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분유가 폐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새끼 고양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매주 100g 이상  
체중이 증가한다.

### 나) 분유 만들기과 보관방법

고양이 전용 분유를 만들 때 물이 적거나 더 많이 들어가면  
변비, 영양부족,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과의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또한, 분유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물의 온도는 살짝 따끈한 온도(40℃)가 적당하며 수유 전에 분유를 손등에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한다.

만들어 놓은 액상 분유는 24시간 냉장 보관이 가능하나 되도록 한 끼 먹일 양만큼만 만들어 사용하고 가루 분유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냉장 보관한다. 개봉하고 남은 가루 분유는 냉장 보관 시 3개월, 냉동보관 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다) 분유 먹이는 방법

수유할 때 새끼 고양이의 배가 바닥에 닿는 자세여야 하고, 이와 같은 자세를 거부한다면 담요 등으로 고양이 몸을 감싸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사람(영아)을 안아서 먹이는 자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모유 수유할 때처럼 배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머리는 살짝 위로 올려 목을 편 자세를 유지하도록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한다. 수유 중일 젖병을 눌러서 강제로 수유하면 분유가 호흡기로 넘어가므로 주의해야 하며, 과식하지 않도록 배를 만져가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주령 미만의 새끼 고양이에게는 한 끼에 체중 100g당 분유 4mL 또는 하루에 30mL 정도의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 라) 분유를 먹인 후

수유 후에는 손바닥에 고양이를 놓고 다른 손으로 고양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어 고양이가 트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만 트림 소리가 반드시 들리는 것은 아니다. 수유가 끝난 젖병은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하고, 고양이가 배변·배뇨를 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새끼 고양이가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새끼 고양이가 이빨이 자라면서 젖병의 꼭지 부분을 씹기 시작하는데 씹다가 꼭지 일부를 삼킬 수도 있으니 수유가 끝나면 젖병 꼭지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주령 미만의 고양이에게는 인위적인 자극으로 배뇨와 배변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수유 후에 배변·배뇨 자극을 주어 배변은 하루에 최소 한 번, 배뇨는 수유 때마다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어미가 새끼의 생식기 주변을 핥아 배변·배뇨를 유도하듯이 따뜻한 물로 적신 거즈나 솜 등으로 새끼 고양이의 생식기

주변을 살살 문질러 주어 배뇨, 배변이 잘 이루어지도록 반복해서 도와야 한다. 배변은 하루에 최소 한 번, 배뇨는 그 이상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수유마다 배뇨·배변을 유도해야 한다.

#### 마) 시기별 급여량 및 급여시간 등

- (1) 2주령 미만 고양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만 자는데, 잠이 들지 못하고 계속 울거나 수유를 할 때도 자꾸 운다면, 건강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새끼 고양이는 감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24시간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새끼 고양이가 계속 운다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 (2) 3주령 미만 고양이는 2~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고, 만약 수유를 거부한다면 다음 수유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시도해본다. 2회 연속으로 고양이가 수유를 거부한다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 (3) 고양이가 3주령이 되면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를 주고, 이 시기에는 분유와 물, 사료를 섞어 만든 죽 형태의 이유식을 먹이도록 한다. 고양이가 이유식을 거부하면 계속 분유를 먹이고 이때 고양이가 배고프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만일 지속해서 거부하면 손가락으로 이유식을

고양이의 입술에 문혀 맛보게 해준다.

고양이가 스스로 그릇에 담긴 이유식을 먹게끔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이유식을 만들 때 처음에는 분유보다 약간 농도를 높게 만들고, 건 사료를 먹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 함량을 줄여 걸쭉하게 만들어 준다. 다양한 이유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해산물 종류는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먹고 남은 이유식은 바로 폐기하되 습식 캔의 내용물을 덜어낸 경우 남은 내용물은 밀봉해서 48시간까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4) 고양이가 5주령이 되면 하루 3번, 건 사료와 물을 급여한다.

### 3) 배뇨, 배변 연습

3주령이 되면 고양이가 스스로 배변과 배뇨를 시작하나 배설물이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배변 유도를 계속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고양이 전용 모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흔하게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는 혹여 새끼 고양이가 먹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8주령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가 배변적응을 할 때까지 배변통 바깥에 실수할 수

있는데, 이때 배설물을 배변통 안으로 넣어 주어 냄새가 배도록 하면 적응에 도움이 된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식사 직후 고양이를 배변통 위에 올려주는 것도 훈련이 될 수 있다. 배변통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4) 목욕시키기

새끼 고양이는 스스로 털 손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문 등 오염부위가 심하다면 동물용 샴푸를 소량 묻혀 부분적으로만 목욕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오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따뜻한 물로만 닦아주어도 좋다.

얼굴 주변의 눈이나 코, 귀 부위는 최대한 물이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얼굴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된다. 젖은 털은 드라이기를 이용해 완전히 말려주어야 하며 드라이기 소음이나 바람의 세기 때문에 고양이가 무서워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바람이 너무 세거나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동물 전용 드라이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멍이 군데군데 있는 바구니를 얹어 그 안에 고양이를 두고 바구니 위에 담요를 살짝 덮어 어둡게 해준다. 담요로 덮지 않은 한쪽 면을 통해 드라이기를 적당한 거리에서 사용하면 고양이가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 5) 고양이와 친해지기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기간에 고양이가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매일 여러 번 놀아주는 것이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하며 하루 1~2번 길게 노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놀아주는 것이 더 좋다. 고양이가 임시보호자와 어느 정도 친해졌다면, 집안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도 친해질 수 있도록 놀이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아울러, 고양이가 집안의 생활 소음에 익숙해지도록 벨, 청소기, TV 등의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양이들이 탐색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머무는 장소에 종이상자 등을 배치한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사람의 손이나 발로 놀아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무는 것이 놀이 중 습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손 대신 막대 장난감, 낚싯대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놀아주도록 한다.



## 치료가 필요한 동물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보호 가정에 위탁된 동물이라면 빠른 회복을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 머무르게 해줘야 한다. 회복 중인 동물이라면 아직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그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중인 동물에게는 다른 스트레스가 추가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도움(신선한 사료와 물 제공)을 제공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보호자는 동물이 회복된 후 입양 가정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동물과 자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활동적인 놀이를 피하는 대신 평소에 쓰다듬어 주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도록 한다.

### 1) 투약 방법

치료 중인 동물에게 처방된 약이 있다면 반드시 투약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한, 투약 중 상태가 호전되었을지라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 처방된 약을 다 투약하여야 한다.

### 가) 경구 투약

- (1) 캡슐이나 정제약을 경구로 투약할 때는 한 손으로 동물의 머리를 젖혀 입을 살짝 열리게끔 유도하고 다른 손의

엄지, 검지로 약을 잡은 상태에서 중지로 아래턱을 벌리며 목구멍 안쪽으로 알약을 깊숙이 넣어준다.

알약이 들어갔다면 동물의 입을 잡아 다물게 하고 목을 아래쪽으로 문지르고 코에 입김을 불어 연하반사(삼킴 반사작용)를 유도한다. 개는 가루약의 쓴맛이 강하지 않다면 습식사료나 간식에 섞어 쉽게 먹일 수 있으나 고양이는 쉽지 않다. 고양이가 습식사료나 간식에 섞은 약을 잘 먹는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약에 식물성 기름을 살짝 발라 목넘김을 용이하게 만들어 위의 방식으로 강제 투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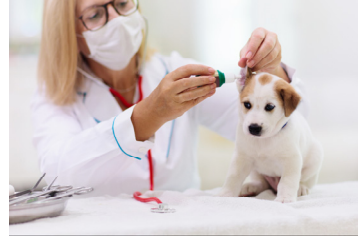
- (2) 액상의 약을 고양이에게 투약할 때는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게 해서 주사기 등으로 혀의 뒤쪽으로 천천히 흘려주어 투약한다. 그러나 고양이가 기침하거나 머리를 계속 흔들어 먹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습식사료나 간식에 섞어 투약을 시도해볼 수 있다.

액상의 약을 개에게 투약할 때는 고양이와 같이 혀 뒤로 흘려보내는 방법과 개의 머리를 살짝 젖히고 어금니와 볼 사이에 주사기 등으로 액체를 천천히 떨어뜨려 개가 삼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3) 젤 형태의 영양제 등은 개의 경우 대부분 잘 먹는 편이지만 맛이 없어 잘 먹지 않는다면 손가락으로 적정량을 묻혀서 입천장에 발라준다. 고양이의 경우는 대부분 잘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잇몸과 볼 안쪽 사이에 묻혀서 투약을 시도한다.
- (4) 안약을 넣을 때는 동물의 머리를 살짝 젖혀 눈꺼풀 안쪽에 소량을 넣고 눈을 감게 한다. 차가운 안약이 갑자기 눈에 떨어지면 놀라서 거부감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투약 전에 약병을 손에 감싸서 차갑지 않게 가온해준다. 이 방법이 쉽지 않은 고양이는 다른 사람이 담요나 수건으로 고양이를 단단히 감싼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 (5) 귀에 약물을 투약할 때는 귀 끝을 잡고 귓바퀴를 머리에 수직이 되게 보정한 상태에서 처방된 용량만큼 넣어준다. 대부분 약을 넣는 순간 동물이 머리를 흔들기 때문에 귀를 단단하게 잡고 외이도 겉에서부터 흘러주어 약물이 안쪽까지 잘 스며들게 해야 한다. 고양이는 보정이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이 담요나 수건으로 고양이를 감싼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물이 극도로 싫어하여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투약을 중단하고  
임시보호 담당자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임시보호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 08

#### 정상적인 체온, 심박수, 호흡수

| 개의 정상적인 체온 · 심박수 · 호흡수 |               |          |
|------------------------|---------------|----------|
| 체온                     | 심박수(휴식상태)     | 호흡수      |
| 38.3~39.2℃             | 소형견 90~120회/분 | 18~24회/분 |
|                        | 중형견 70~110회/분 |          |
|                        | 대형견 60~90회/분  |          |

| 고양이의 정상적인 체온 · 심박수 · 호흡수 |            |          |
|--------------------------|------------|----------|
| 체온                       | 심박수(휴식상태)  | 호흡수      |
| 38.3~39.2℃               | 150~200회/분 | 20~30회/분 |

✱ 임신보호 동물이 아래의 증상을 보이면 임신보호 담당자에게 연락  
해야 한다.

| 12주령 미만의 동물               | 12주령 이상의 동물               |
|---------------------------|---------------------------|
| • 설사를 하루 이상 지속하는 경우       | • 설사를 1~2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
| • 6시간 이상 구토·설사를 지속하는 경우   | • 하루 이상 구토·설사를 지속하는 경우    |
| • 12시간 이상 물, 사료를 먹지 않는 경우 | • 24시간 이상 물, 사료를 먹지 않는 경우 |
| • 12시간 이상 무기력한 경우         | • 24시간 이상 무기력한 경우         |
| • 고열과 함께 무기력한 경우          | • 고열과 함께 무기력한 경우          |

## 임신보호 동물이 아플 때 대처방법

### 1) 눈을 뜨기 힘들어하고, 흰자위가 붉은 경우

만약 임신보호 중인 강아지가 눈을 뜨기 힘들어하거나 흰자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다면 눈에 통증이 있거나 이물감이 있을 수 있다. 눈을 잘 관찰하여 티끌이나 털 등의 이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이물이 있다면 눈물 성분이나 세정용 점안액을 떨어뜨려 씻어낸다.



몇 방울 떨어뜨려 눈을 깜빡거리게 한 다음 솜으로 가볍게 닦아준다. 만약 이물을 찾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통증이나 가려움 등으로 눈을 문지르지 못하도록 넥 칼라(엘리자베스 칼라)나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에 착용시켜 준다. 보통 개들은 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앞발로 눈을 문지르거나 눈을 땅바닥에 문지른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2) 눈이 부었거나 튀어나온 경우

가) 눈 안에 티끌이 들어가서 아파한다면 인공눈물이나 식염수, 또는 눈물 성분과 동일한 안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 눈을 떼다 감았다 시켜 준다. 눈 주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준 뒤 눈을 긁지 못하도록 넥 칼라를 착용시킨다. 눈 주위가 눈곱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물에 적신 거즈나 솜으로 부드럽게 닦아준다.

나) 임시보호 중에 갑작스러운 외상 등으로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각막이 마르거나 오물 등이 묻지 않게 젖은 거즈로 눈을 덮어주고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응급처치를 잘하면 실명하지 않고 원상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 3)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

재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해 적절한 실내 환경(온도 25℃, 습도 50~60%)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바이러스 등에 의해 재채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채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체력보강을 위해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

코 주변에 이물이 보이면 핀셋으로 살짝 집어서 제거해 주되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아야 한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엔 산책을 삼가거나 산책 후 털에 묻은 먼지를 제거해 주고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

### 4) 귀 가려움, 귀 냄새 등의 증상

개들은 귀가 가려우면 귀를 발로 긁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또한, 귓속을 들여다보면 귀지가 끼었거나 귀가 빨개져 꺼칠꺼칠하거나 귀를 긁어 상처가 생긴 경우도



있다. 우선 가려움증으로 귀를 긁지 않도록 넥 칼라를 착용시키고 반려견용 귀 세정액을 사용하여 솜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눈에 보이는 부위를 닦아준다. 단, 수돗물과 면봉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검고 건조한 귀지가 많이 보이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면 진드기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너무 간지러워 귀를 긁다가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진드기에 감염이 의심되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간혹 주위 환경이나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음식을 바꾸거나 주변을 청소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

#### 5) 이물을 삼킨 경우

이물을 삼킨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달라진다.

- 가) 이물을 삼킨 뒤 1시간 미만이면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물을 먹은 상세한 상황과 이물의 성분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흡수되기 전 위(胃)에 있을 때 약을 사용하여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1시간 이상 지나면 서서히 소화 흡수가 시작되어 위(胃) 속의 내용물을 모두 토해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나) 만약 6시간 이상 경과 후 기력이 없어 보이거나 구토를 한다면 서둘러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음식을 주지 말고 다음 날 검사를 받도록 한다.

#### 6) 토를 자주 하는 경우

토하는 행동에는 ‘구토’와 ‘토출’의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가) 구토는 위 또는 장의 내용물이 식도를 거쳐 입으로 토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통상 토하기 전에 오심이나 구역질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강아지는 보통 머리를 숙이고 복부를 크게 움직이면서 “캐, 캐”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토하는 경우가 많고 고양이는 “으, 으”하는 동작을 보이고 토를 한다.

나) 이와 다르게 토출은 음식물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역류하여 토하는 상태로 음식을 먹은 후 단시간 내에 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토와 달리 토하기 전에 오심이나 구역질 등의 증상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유동식이나 통조림 등 소화가 쉬운 것으로 바꾸거나 건사료의 종류를 바꾸면 구역질을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양이의 경우 매일 토하는 것이 아니면 일단 12시간 정도

절식을 해본 다음 증상이 중단되고 기력이 되살아나면 평소의 1/3 정도의 음식물을 물에 불려서 주고 지켜본다.

만약 계속된 구토, 토출 또는 설사를 하는 등 기력이나 식욕이 떨어지면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7) 설사를 보이는 경우

설사는 몸의 컨디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서, 평소 쉽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보통 음식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던 음식이 변하면 설사를 한다. 그 외에도 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 이물 섭취, 감염증을 포함한 소화기 질환 등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한나절 동안 절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위를 쉬게 해주면 설사 증상이 완화되어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음식의 양을 평소의 1/2~1/4 정도로 줄여서 제공한다. 반려견용 유산균제를 먹이는 것도 좋다. 설사로 인해 많은 수분이 배출되므로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여야 한다.

임시보호 동물이 설사 증상을 보인다면 집안에 다른 반려동물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설사가 오래 지속되거나 이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8) 물과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식욕이 없는 경우

식욕부진의 원인은 다양하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몸의 어딘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12시간 이상 식욕이 없으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9) 기침을 하는 경우

기침은 기도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날숨으로 개체의 품종이 연관된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 원인일 수 있다. 먼저 기침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해야 하며 잘 모를 경우 수의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다. 만약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가 단두종(퍼그, 불도그, 시추 등)이라면 가벼운 기침은 별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평소보다 기침이 심하다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10) 고양이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건강한 상태에서 고양이의 잇몸은 분홍색 또는 연한 적색을 띤다. 잇몸 출혈의 원인으로 외상, 치주병, 그리고 젖니가 빠지는 시기의 정상적인 출혈 등이 있다. 출혈이 계속되면 거즈 또는 티슈 등을 몇 겹 접은 상태로 입안에 넣은 후 출혈 부위를 손가락으로 압박 지혈을 해준다. 응급처치하면서 잇몸이 빨갛지 않은지, 흔들거리거나 빠진 이빨 또는 부러진 이빨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입에 손을 대면 아파하는지

확인하고 평소 음식을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고양이는 입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므로 입안을 관찰하거나 지혈을 할 때는 한 사람이 고정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혈되지 않거나 또는 응어리, 종기 따위가 보이면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11)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힘이 없는 경우

다리에 힘이 없으면 휘청거리거나 불안정하게 넘어지면서 2차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우선 반려동물용 케이지나 이동장(크레이트) 안에 넣어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수건 또는 쿠션 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잠시 일시적으로 휘청거리는 것이라면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응급처치 후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어도 집 안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이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주면 좋다. 만약 이런 증상을 오래 지속하거나 또는 고양이에게서 나타나면 위중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12) 고양이 비듬

비듬은 오래된 피부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병이 아니더라도 공기가 건조하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비듬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진드기, 피부사상균(곰팡이), 옴 등에 감염되면 비듬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비듬 이외에도 가려움증이나 탈모 등의 증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질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동물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비듬이 묻었을 만한 물건과 주변은 모두 소독해 준다.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가려움증이 심하면 고양이가 환부를 긁어 상처를 내므로 넥 칼라를 착용시켜 상처와 출혈을 방지하도록 하고 임시호보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임시보호 동물의 문제행동

### 09

임시보호 동물 중에는 과거 안 좋은 경험(학대 등)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임시보호 담당자는 피학대 경험이 있는 동물이거나 사회화가 필요한 동물일 경우 기본예절 등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임시보호자에게 별도로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의 입장에서 개와 고양이의 문제행동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본능적인 습성이거나 정상 행동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동물의 일부 행동들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고 가끔은 장난감이나 다른 기구를 통해 동물이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가 갖는 문제행동 유형

|              |             |          |
|--------------|-------------|----------|
| 짖기           | 분리 불안       | 집안 어지럽히기 |
| 복종 또는 흥분성 소변 | 소변(Marking) | 교미 행동    |
| 두려움          | 소유욕         | 우위의 공격성  |
| 쓰레기통 뒤지기     | 가구 긁기       | 식분증      |

임시보호 동물에게 위와 같은 문제행동이 발견되면 우선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임시보호 중인 개가 산책을 충분히 했는지 혹은 실내에서 놀이 시간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는 동물이 실내에서 장시간 혼자 있거나 지내는 공간이 불편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임시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고함 등이 임시보호 동물을 위축하게 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1) 임시보호 동물에게 문제행동이 있다고 생각되면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알리고 임시보호 기간에 기본교육을 통해 교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행동교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만, 행동교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체벌이나 큰 소리를 내는 등 화를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동물은 사람의 화난



목소리나 행동, 표정까지 읽어내고 웅크리거나 숨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동물 자신은 어떤 행동으로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동물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만 생각할 뿐이므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일어난 뒤에 체벌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만약 임시보호자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임시보호 동물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을 제공하고 교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임시보호자에게 동물을 인계하거나 동물보호센터로 다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 10

#### 임시 보호 동물의 탈출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중인 동물이 머무는 방 주변 문과 창문이 제대로 닫혀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울타리나 이중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갑자기 임시보호 동물이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임시보호 동물이 외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항상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시보호 중인 개와 산책 중 실수로 목줄을 놓치더라도 당황하거나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면서 간식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가 탈출한 경우에는 고양이의 냄새가 밴 담요나 화장실  
(변기통)을 집 밖에 둔다.

## 임시 보호의 중단

임시보호 중인 동물 혹은 임시보호자에게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  
임시보호를 중단해야 할 경우 임시보호자는 즉시 임시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동물을 데려와야 한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되며 동물보호센터 정책에 따라 우선 동물보호센터로 복귀한  
후 다시 임시보호 선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시보호자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 입양가족 찾아주기

### 11

#### 임시보호 일지(개체 기록지) 작성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을 돌보는 동안 동물의 건강과 성장 상태 등 임시보호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일지는 향후 입양 희망자에게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와 성격, 사회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동물이 새로운 입양가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임시보호자는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작성하되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을 심하게 경계함’보다는 ‘동물보다 사람에게 더 친근함’으로 작성한다면 향후 입양가족이 동물의 성장일기를 읽을 때 입양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형성될 것이다.

## 사진 촬영

고양이는 좀 덜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강아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실외 산책이나 실내 장난감 놀이 등을 통해 충분히 놀고 난 후 쉬고 있을 때 사진 촬영을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촬영할 때 다른 손으로 카메라 위에 장난감이나 간식을 들고 있으면 동물이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면 더 수월하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장난감이나 리본처럼 귀여운 소품이 함께 나오는 사진이면 더 좋다.

## 다양한 홍보

임시보호자가 직접 임시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양가족을 찾아주어야 한다.

기관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블로그, SNS, 카페 등)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지인에게 소개하여 주변에서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관에서 주최하는 입양 관련 행사가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입양을 독려하거나 또는

산책할 때 ‘임시보호 중’, ‘가족을 찾습니다’, ‘입양 가능’과 같은 문구가 있는 조끼를 입히거나 손수건을 목에 둘러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임시 보호 종료

### 12

임시보호 기간이 지나도 임시보호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다면 임시보호 담당자와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데려가서 새로운 임시보호자를 찾아야 한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입양을 가게 되면 기쁘고, 보람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시보호 동물에 대한 미안함에 힘들어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임시보호 대상 동물을 선정할 때 입양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임시보호 동물의 사회화 교육 일지

작성자:

(서명)

| 동물이름   | 나이 | 동물종  | <input type="checkbox"/> 개<br><input type="checkbox"/> 고양이 | 품종 |
|--------|----|--|--|----|
| 개체관리번호 | 성별 |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중성화 | 임시보호<br>시작일  |    |

|            |                                 |                                  |                                   |                                 |
|------------|---------------------------------|----------------------------------|-----------------------------------|---------------------------------|
| 행동기록       | <input type="checkbox"/> 크게 짖는다 | <input type="checkbox"/> 뛰어다닌다   | <input type="checkbox"/> 만지려고 한다  | <input type="checkbox"/> 텅군다    |
|            | <input type="checkbox"/> 안긴다    | <input type="checkbox"/> 꼬리를 흔든다 | <input type="checkbox"/> 갑자기 일어난다 | <input type="checkbox"/> 달린다    |
| 주변 소리      | <input type="checkbox"/> 청소기 소리 | <input type="checkbox"/> 드라이기 소리 | <input type="checkbox"/> 현관 벨소리   | <input type="checkbox"/> TV 소리  |
|            | <input type="checkbox"/> 동물 소리  | <input type="checkbox"/> 문 닫힘 소리 |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소리   | <input type="checkbox"/> 전화벨 소리 |
| 바닥 면<br>경험 | <input type="checkbox"/> 세탁기 소리 | <input type="checkbox"/> 샤워기 소리  | <input type="checkbox"/> 선풍기 소리   | <input type="checkbox"/> 천둥소리   |
|            | <input type="checkbox"/> 풀밭     | <input type="checkbox"/> 콘크리트    | <input type="checkbox"/> 매끄러운 바닥  | <input type="checkbox"/> 카페트    |
| 스킨십        | <input type="checkbox"/> 인조 잔디  | <input type="checkbox"/> 소파      | <input type="checkbox"/> 모래       | <input type="checkbox"/> 아스팔트   |
|            | <input type="checkbox"/> 발 만지기  | <input type="checkbox"/> 귀 만지기   | <input type="checkbox"/> 얼굴 만지기   | <input type="checkbox"/> 꼬리 만지기 |

임시보호 동물이 임시보호 기간 중 각 항목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이때 간식, 장난감 등으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성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내용은 아래에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회화 경험



• 해당 서식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www.gseek.kr](http://www.gseek.kr))의 '구조, 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의 강좌 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 동물의 건강상태 기록지

작성자:

(서명)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칸에 체크·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이름   | 나이 | 동물종  | <input type="checkbox"/> 개<br><input type="checkbox"/> 고양이 | 품종 |
|--------|----|--|--|----|
| 개체관리번호 | 성별 |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중성화 | 임시보호<br>시작일  |    |

| 순번                                       | 기준일자      | 시간    | 기침 | 재채기 | 구토<br>(횟수) | 설사<br>(횟수) | 대변<br>(상태) | 소변<br>(상태) | 식욕 |
|--|-----------|-------|----|-----|------------|------------|------------|------------|----|
| 예시                                       | 20.02.03. | 09:00 | ×  | ×   | ×          | ×          | 양호         | 양호         | ○  |
| 관찰/의견 : 식욕 왕성, 사료 추가로 더 먹임, 무른 변, 설사의심 등 |           |       |    |     |            |            |            |            |    |
| 1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2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3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4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5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6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7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8주차                                      |           |       |    |     |            |            |            |            |    |
| 관찰/의견 :                                  |           |       |    |     |            |            |            |            |    |

### 기타 의견

• 해당 서식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www.gseek.kr](http://www.gseek.kr))의 '구조, 보호동물 임시보호 교육'의 강좌 정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ASPCA, Feline Foster Care Guide,  
<https://www.aspcapro.org/download-feline-foster-care-guide>,  
검색일 2019. 06. 26.
- Chaleston Animal Society, Life-Saving Foster Care Guide,  
<https://www.maddiesfund.org/assets/documents/Institute/generaldogcatfostermanual1521148937346.pdf>, 검색일 2019. 06. 30.
- Seattle Animal Shelter, Foster Dog Manual: A Guide for Foster Dog Parents,  
<https://www.seattle.gov/animal-shelter/getinvolved/volunteer/foster-dog-program>, 검색일 2019. 07. 01
- 조운주, 「서울시 유기동물 임시보호 매뉴얼」, 2019
- 사토 타카노리, 「반려견 응급처치 매뉴얼」, 김주영, 2015
- 사토 타카노리, 「고양이 응급처치 매뉴얼」, 김주영, 2015

|     |                                 |
|-----|---------------------------------|
| 발행처 | 경기도 동물복지과                       |
| 발행일 | 2023년 8월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
| 전화  | (031) 8030-4435                 |
| 감수  |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
| 편집  | 형설출판사 편집부                       |
| 제작  | 형설출판사                           |

